



구로사와 아키라

스티븐 스피버그는 스스로를 '구로사와 칠드런(Children)'이라고 칭했다. 그 뿐만 아니다. 조지 루커스,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킵 베송, 오우삼 등 외국 감독들과 미야자키 하야오, 이마무라 쇼헤이 등 내로라하는 일본 영화감독들 역시 구로사와에 대한 존경을 감추지 않았다.

세계 영화계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1910~1998) 감독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일보사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광주시네마테크가 공동 주최하는 '구로사와 아키라 특별전'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광주주극장에서 열린다.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상영됐던 프로그램으로 지방에서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진행된다.

화가로 꿈꾸며 미술을 공부하던 구로사와는 1943년 '스카타 산시로'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이후 '라쇼몽'(1950)으로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세계 영화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그는 '7인의 사무라이'(1954)로 베니스국제영화제 은사자상, '숨은 요새의 세 악인'(1959)으로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카케무사'(1980)로 칸 영화



조용한 결투

한 편집, 일본 전통연극 방식의 차용 등 세계영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대표작 '7인의 사무라이', '라쇼몽'부터 그의 마지막 작품인 '마다다요'(1993)까지 모두 14편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었던 '조용한 결투', '추문' 등 초기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상영작은 혼돈에 빠진 일본 사회를 누아르적 터치로 풀어낸 초기 걸작 '들개'(1949), 세르지오 레오네가 '황야의 무법자'로 리메이크한 '요짐보', 생의 마지막 시점에 의미 있는 일을 감행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아키무' 등이다.

또 '고전'을 재해석한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동명 원작을 각색한 '백치'(1951), 세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시대극으로 옮긴 '거미집의 성'(1957), 에드 맥 베인의 '왕의 몸값'을 각색한 '천국과 지옥'(1963) 등이 대표적이다.

'붉은 수염', '마다다요' 등 구로사와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던 일본 대표 여배우 가가와 교코가 광주를 찾는다. 13일 '붉은 수염' 상영 후에는 오타케 요코(동경국제여성영화제 디렉터)씨와 대담을, 14일 '천국과 지옥' 상영 후에는 관객들과 시네토크를 진행한다.

그밖에 18일에는 '거미의 집' 상영 후 영화평론가 정성일과 함께 하는 시네토크 행사도 준비돼 있다.

시간표는 광주주극장 홈페이지(<http://cafe.naver.com/cinemagwa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구로사와 아키라 특별전 Kurosawa Akira Special



7월13~20일 광주주극장



정목 스님 안치환 故 범능 스님

'아름다운 꽃이어라'

10일 외국인 근로자 쉼터기금 마련 음악회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꽃이어라' 음악회를 개최한다.

해남 땅끝마을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에는 '힐링 법문'으로 알려진 정목 스님, 가수 안치환씨, 피아니스트 정겨울씨가 출연하고 '노래하는 스님' 고(故) 범능 스님 영상이 상영된다.

1부에서는 범능 스님 생전 영상을 통해 새 음반 '나 없iera'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던 중 지난 6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범능 스님은 80년

오월 광주를 겪은 뒤 노래 운동에 뛰어들었고, 출가 후 '오월의 꽃' '먼산' '삼경에 피는 꽃' 등 음반을 내고 전국에서 자선 공연을 펼치는 등 소외된 이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어 안치환씨의 노래 '내가 만일' '공야에서' '인생은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계속된다.

2부에서는 정목 스님이 피아니스트 정겨울씨의 연주에 맞춰 '당신은 소중한 사람' '넌과 판타지아' 등을 노래한다. 정목 스님의 '힐링 특 명상' 시간도 마련돼 있다. 티켓 가격은 전석 2만원. 문의 062-962-339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기의 거장을 만나다

광주일보사·日국제교류기금 공동 주최 '라쇼몽' '7인의 사무라이' 등 14편 상영

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영화사에 이름을 남겼다.

주최측은 프로그램북을 통해 구로사와 감독의 "현대극과 사극, 액션과 잔잔한 드라마까지 자유롭게 장르를 넘나들며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영화를 만들어왔다"고 소개했다. 또 "딥 포커스와 대각선 구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박력 넘치는 촬영과 숫 하나도 남비하지 않는 명쾌

구로사와 아키라 특별전

13	11:00 숨은 요새의 세 악인	14:00 붉은 수염	19:00 7인의 사무라이
14	11:00 거미집의 성	13:30 천국과 지옥	17:00 이키루
15	14:00 추문	17:00 들개	19:30 숨은 요새의 세 악인
16	14:00 붉은 수염	17:30 쓰바키 산주로	19:30 이키루
17	14:00 백치	17:20 추문	19:30 요짐보
18	11:00 마다다요	14:00 천국과 지옥	17:00 조용한 결투
19	11:00 요짐보	14:00 조용한 결투	16:00 백치
20	11:00 라쇼몽	13:00 들개	15:30 7인의 사무라이



요짐보

'대숲을 거닐다'

17일까지 롯데갤러리

일찍이 대나무는 그 상징성 때문에 사군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묵화로 그려지는 등 오랜 시간 화재(畵材)로 사랑을 받아왔다.

고산 윤선도는 자연의 다섯 벗을 읊는 오우가(五友歌)에서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시기며 속은 어이 비웠는가.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라고 대나무를 예찬했다.

광주 롯데갤러리가 오는 17일까지 '대숲을 거닐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장찬홍·김선두·이구용(이상 한국화), 송필용·이기홍·김진화(이상 서양화), 강행복(관화), 라규채(사진), 박상화(미디어)씨 등 9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작가들은 현대적인 미감으로 대나무를 재해석하기도 하고, 전통 미의식을 계승해 대나무 본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계산 장찬홍, 김선두, 이구용, 김진화,



박상화 작 'illusion in the bamboo'

박상화 작가는 푸른 청죽(靑竹)의 위용을 담았고, 대숲을 소재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해오고 있는 이기홍, 라규채 작가는 거센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했다. 강행복, 송필용 작가는 달빛과 푸른 대숲을 서정적인 화면으로 재구성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끌어냈다. 문의 062-221-180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서울점 02)765-994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코잔드침대**  
온열, 안마

이승엽침대  
코잔드 201 진동안마침대  
프레임 A6247

코잔드침대 온열, 안마침대 이승엽침대

**소파 60종류**

**이태리엔틱 식탁, TV장**

자하~2층 소파, 식탁 전문매장 3층 온열, 안마, 단롭침대 4,5층 50%할인매장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1899-0240